

● 보충용 매우 간단 중세국어 문제

▣ 다음 표를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음의 세기는 대체로 유음(ㄹ)이나 비음(ㄴ, ㄷ, ㅇ)과 같은 울림소리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과 같은 안울림소리보다 더 약하다. 안울림소리의 경우에는 예사소리의 세기가 거센 소리나 된소리보다 약하다. 그러므로 양순음에 속하는 자음의 세기를 보면 울림소리인 'ㄹ'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이 안울림 소리이면서 예사소리인 'ㄴ'이 된다.

(나) 훈민정음의 설음과 반설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기본자를 'ㄴ'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획을 더해 만든 'ㄷ, ㅌ, ㄹ' 중 'ㄷ, ㅌ'은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강해 저서 가획자로 분류하지만 'ㄹ'은 그렇지 않아서 이체자로 분류 한다.

- 1 'ㄴ'은 기본자이므로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 [O X]
- 2 'ㄴ'에 획을 더할 때마다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계속 더 세어진다. [O X]
- 3 'ㅌ'이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설음 중에서 가장 강하다. [O X]
- 4 'ㄷ, ㅌ, ㄹ'이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모두 'ㄴ'보다는 강하다. [O X]
- 5 'ㄹ'은 가획을 가장 많이 했으므로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 [O X]

{ 출제예상문제 }

학습 활동 :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생각한 바를 각자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학생 1 : ‘ㄱ’의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니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 학생 2 : 휴대 전화 자판 중에는 ‘·, —, |’를 나타내는 3 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어서 참 편리해요.
- 학생 3 :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관계가 <A>—<A에 획 추가>—<AA>로 글자 모양에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인 문자인 것 같아요.
- 학생 4 : ‘ㄹ’과 ‘ㄴ’에 획을 추가해서 만든 자음자들은 ‘ㄹ’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포함된 ‘ㄹ’ 모양은 이들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 것이에요.
- 학생 5 :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글자 수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6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학생 1 / 학생 2 / 학생 3 / 학생 4 / 학생 5]

7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학생 1 / 학생 2 / 학생 3 / 학생 4 / 학생 5]

8 기본자 외의 8개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학생 1 / 학생 2 / 학생 3 / 학생 4 / 학생 5]

훈민정음 28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은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는데, 기본자 ‘·’와 나머지 기본자 하나를 합성하여 초출자를 만들고 이러한 초출 자에 ‘·’를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를 만들었다. 자음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의 다섯이고, 모음의 기본 글자는 ‘·, —, |’이다.

9 ‘ㄷ’과 ‘ㅌ’은 ‘ㄴ’에 가획을 한 것이므로 [자음 : 상형 / 가획 / 이체 / 모음 : 상형 / 합성 / 합용]에 해당하겠군.

10 ‘ㄴ’과 ‘ㄷ’은 ‘ㄴ’에 가획을 한 것이므로 [자음 : 상형 / 가획 / 이체 / 모음 : 상형 / 합성 / 합용]에 해당하겠군.

11 ‘ㅇ’과 ‘ㆁ’은 ‘ㅇ’에 가획을 한 것이므로 [자음 : 상형 / 가획 / 이체 / 모음 : 상형 / 합성 / 합용]에 해당하겠군.

12 ‘ㅌ’는 기본자 ‘ㄴ’과 ‘·’를 합성한 것으로 [자음 : 상형 / 가획 / 이체 / 모음 : 상형 / 합성 / 합용]에 해당하겠군.

13 ‘ㄴ’는 초출자 ‘ㄴ’과 ‘ㅌ’를 합성한 것으로 [자음 : 상형 / 가획 / 이체 / 모음 : 상형 / 합성 / 합용]에 해당하겠군.

14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 때 모두 모양을 본뜨는 방식이 사용되었군. [O X] ¹⁴

15 기본자를 만들 때와 기본자 이외의 글자를 만들 때에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군. [O X] ¹⁵

16 ‘ㄱ’은 가획자이므로 ‘ㄱ’보다 소리의 세기가 강하겠군. [O X] ¹⁶

17 재출자는 초출자 ‘ㄴ, ㄷ, ㄹ, ㅁ’와 ‘·’의 조합으로 만들어졌군. [O X] ¹⁷

18 중성에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중성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O X] ¹⁸

이어 적기(연철)란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달아 이어 쓰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16세기부터 조금씩 무너져 갔고 이에 따라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이어 쓰지 않고 분리하여 끊어서 표기하는 끊어 적기(분철)가 증가하게 되었다. 심지어 거듭 적기 (흔철)가 등장하면서 표기 방식은 더 복잡해졌다.

19 모미(뭉+이)며 머리며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0 불휘 기픈(깊--+은) 남곤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1 늪물롤(늪물+을) 썩리게코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2 내 넬물(넬+을) 그리수와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3 내 엇디춤아(춤--+아) 혼자 살리오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4 유·익·훈·이 :세 가·짓 :벌·이·오(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요)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5 불·휘 기·픈 남·곤 ㉠부·래 아·니 :뭇·씨(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6 내 漢人사록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漢人 말을 아노라

(나는 중국인한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중국어를 안다.)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7 너·는 ㉢高麗人:사·루·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날·오·미 잘·하·느·뇨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어를 잘하는가?)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국어의 표기법은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여 왔다. 여기서 이어 적기란 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방식이고, 끊어 적기란 각 형태소들을 분리하여 적는 방식이다. 한편 근대 국어에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과도기적 방식이 나타났는데 이를 거듭 적기라 한다

28 부엉이 對答(대답)하야 갈오디 이 地方(지방) 수롬은 내 ㉣우를 소리를 미워하느 故(고)로 나느 다른 地方(지방)으로 울무라 호노라 하니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29 비둘기 ㉤우서 갈오디 주네 우는 소리를 곳치지 안코 居處(거처)만 음기면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30 如舊(여구)히 또 ㉥미워함을 똬(면)치 못하리라 하얏소 이 이이기는 춤 滋味(자미)잇습느이다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31 여러분 중에도 自家(자가)의 악훈 ㉦일은 곳치지 안코 다른 디로만 가랴고 호느니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32 ㉧잇스면 이는 亦是(역시) 이 비둘기의게 우슴을 보오리다 ➡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 출제예상문제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니보는 농안현 ㉠사롭이니 그 아비 티방이 사오나온 병을 ㉡어더 거의 ㉢죽게 되니 구하여도 효험이 업서 일야의 우더니 ㉣우메 중이 고하여 날오디 산 사람의 뼈를 ㉤머그면 가히 도하리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현대어 풀이〉 이보(李甫)는 용안현 사람이니 그 아버지 태방(台芳)이 사나운 병을 얻어 거의 죽게 되니 구완하여도 효험이 없어 일야(日夜)에 울더니 꿈에 중이 고하여 이르되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가히 좋으리라.”

글자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훈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 고로 서툴어서 잘못봄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서 니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 못하는 인민은 나모말만 듯고 무슴 명령인줄 알고 (후략) - ‘독립신문(1896)’

[현대어 풀이]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한 장을 보자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오래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안 쓰니 서툴러서 잘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서를 한문으로만 쓰면 한문 못하는 인민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후략)

- 33 ‘글자가’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음이 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X]
- 34 ‘일그니’를 통해 꺾어 적기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X]
- 35 ‘쓴것보다’를 통해 띄어쓰기가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있다. [O X]
- 36 ‘또’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X]
- 37 ‘듯고’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받침으로 ‘ㄷ’이 와야 할 자리에 ‘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X]

- 불근새 그를 프러 寢室(침실) 이페 ㉠안주니
 - ㉡世子(세자)를 하눌히 고티샤 帝命(제명)이 느리어시닐
 - 도주길 다 자부시니 현 번 뛰운돌 ㉢노미 오루리잇가.
 - 물 우횿 대버를 혼 ㉣소노로 티시며
 - 楚國(초국)엿 天子氣(천자기)를 幸幸(행행)으로 ㉤마그시니
- 「용비어천가」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 ㅏ, ㅑ, ㅓ, ㅕ, ㅗ, ㅛ’의 7개 로, 이 가운데 ‘, ㅏ, ㅑ’는 양성 모음, ‘ㅓ, ㅕ, ㅗ’는 음성 모음, ‘ㅛ’는 중 성 모음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중성 모음은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 어떤 것과도 어울려 쓰였지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 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 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현상을 모음조화라 하는데, 중세 국어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적용 되던 것이 ㉠ ‘.’의 소실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중 ㉠을 설명하는 사례가 맞으면 O, 아니면 X 하시오.

38 ㉠ : 안주니 (안- + -으니) ➡ 앓으니(앓- + -으니) [o x]

39 ㉠ : 세자를 (세자 + 를) ➡ 세자를(세자 +를) [o x]

40 ㉠ : 누미 (눅 + 이) ➡ 남이(남 + 이) [o x]

41 ㉠ : 소노로(손 + 으로) ➡ 손으로(손 + 으로) [o x]

42 ㉠ : 막으시니(막- + -으시니) ➡ 막으시니(막- + -으시니) [o x]

43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 보기 >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①	마늘 > 마늘	훈 > 훈
②	사슴 > 사슴	가장 > 가장
③	하나 > 하나	오늘 > 오늘
④	사룸 > 사람	다리 > 다리
⑤	아들 > 아들	다섯 > 다섯

{ 정답과 해설 }

1 ☐ X 'ㄴ'은 기본자이므로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하다고 해야 한다

2 ☐ X 'ㄴ'에 획을 더한 글자중 'ㄹ'은 'ㄷ'이나 'ㅌ' 보다 더 약한 소리를 나타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3 ☐ O 문제는 훈민정음의 자음자를 창제할 때 사용된 가획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가획의 원리는 획을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가)에 나온 설명 내용을 (나)에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ㅌ'은 'ㄷ'에 획을 더한 글자이므로 'ㄴ', 'ㄷ'보다 강한 소리를 나타낸다. 'ㄹ'은 가획을 했으나 나타내는 소리가 더 강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설음 중에서는 'ㅌ'이 가장 강한 소리를 나타낸다.

4 ☐ X 'ㄷ, ㅌ, ㄹ' 중 'ㄹ'이 나타내는 소리는 'ㄴ'보다 강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5 ☐ X 'ㄹ'은 설음을 나타내는 글자 중 'ㄴ'과 더불어 가장 약한 소리를 나타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6 ☐ 학생 1

7 ☐ 학생 3 학생 4

8 ☐ 학생 2

9 ☐ 자음 가획

10 ☐ 자음 가획

11 ☐ 자음 가획

12 ☐ 모음 합성

13 ☐ 모음 합용

14 ☐ O

15 ☐ X

16 ☐ O

17 ☐ O

18 ☐ O

19 ☐ 끊어적기

20 ☐ 이어적기

21 ☐ 거듭적기

22 ☐ 거듭적기

23 ☐ 끊어적기

24 ☐ 끊어적기

25 ☐ 이어적기

26 ☐ 끊어적기

27 ☐ 이어적기

28 ☐ 이어적기

29 ☐ 이어적기

30 ☐ 끊어적기

31 ☐ 끊어적기

32 ☐ 이어적기

33 ☐ O

34 ☐ X 이어적기이다

35 ☐ O

36 ☐ O

37 ☐ O

38 ☐ O

39 ☐ O

40 ☐ X

41 ☐ O

42 ☐ O

43 ☐ ②